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41) (7/23/2021)

제 1 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제 23 장 죽음의 대한 묵상, 1-3 절

욥 9:25-26 - 25.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26.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욥 14:1-2 - 1.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2.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눅 12:20 -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히 9:27 -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 24:44 -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1. 이 땅에서 당신의 삶은 아주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욥 9:25-26; 욥 14:1-2; 눅 12:20; 히 9:27). 그러므로 또 다른 세상에서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게 될 것인지를 그려 보십시오. 오늘 멀쩡히 살아 있는 사람이, 내일이면 우리의 눈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또한, 눈에서 사라지면, 금세 잊힙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무감각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만을 생각하고, 장차 자신에게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준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사에 마치 바로 오늘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한 양심을 지니고 있다면, 죽음이 그리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눅 12:37). 죽음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기보다는, 죄를 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오늘 이미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일이라고 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내일이 올지 안올지는 불확실합니다. 당신이 내일도 살아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2. 오래 살았는데도 삶이 별로 변화된 것이 없다면, 오래 산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사실, 오래 산다고 해서, 삶이 더 선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죄만 더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루를 살았더라도, 선하고 거룩하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잘 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 왔어도, 자신의 삶이 선하게 변화되는 열매를 거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면, 오래 사는 것은 더 두렵고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볼 때마다, 당신도 그 동일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3. 아침에는 밤이 될 때까지 살아 있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밤에는 내일 아침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늘 죽음을 준비한 가운데 살아가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 것입니다(마 24:44)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면, 지금까지 살아 온 지난 모든 세월이 당신에게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이고, 당신은 너무나 생각 없이 부주의하고 나태하게 살아 온 것을 통탄스럽게 여기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해설:

천국을 본향으로, 그리고 이 땅을 타향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신속히 지나가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것을 가슴 깊이 깨닫는 성도는 금방 타올랐다가 신속히 꺼지는 불과 같이, 그리고 아름답게 피었다가도 이내 시들어 버리는 꽃과 같이 변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의 영적인 삶을 준비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 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이 있음을 가르치시면서, 짧게 끝나는 육신의 인생에만 골몰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펼쳐질 삶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준비할 것을 말씀하신다. 성경에 기록된 “본향”이라는 표현, 사도바울이 언급한 “의의 면류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 등의 표현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영원의 세계로 돌리게 한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 예수님의 종말설교인 마 25 장에서 언급된 세 가지 비유(열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는 이 땅에서 주님을 믿으며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는 결과에 대한 말씀이다. 주님은 천국에 대한 강조도 하시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성도로서의 거룩하고 올바른 삶, 열매맺는 삶도 강조하신다.

죽음 이후와 함께 죽음 이전의 삶에 충실한 사람들은 나날이 변화되고 성숙되는 삶을 위해 애쓴다. 아캠피스의 지적대로 오래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거창하고 화려한 삶보다 비록 소박할지언정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더 가치 있으며, 수많은 인간적인 업적을 만드는 삶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가 이다. 성숙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된다. 성숙의 척도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다.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의 삶에 충실한 성도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것, 나의 삶의 주변 정리를 한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내가 언제 죽어도 주님 앞에 부족하나마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내 영혼과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합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며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의 죽음이 언제 갑자기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고 준비하라고 하셨다. 우리의 개인적 종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나 개인의 종말의 때를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며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성도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인생,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날은 살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 주님과 함께 마치 순간을 잡는 듯이 살아가면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를 위해 아끼며, 금방 사라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우리는 죽음의 때를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언제 어느 때 주님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는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3. 코비드 19 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고,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지역들이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